

‘코어톡스’ 상지 근육 경직치료 적응증 획득

메디톡스, 치료시장 입지 ‘탄탄’

론칭 1년만에 2개의 적응증
과도한 근육 수축 억제효과
전염성 미생물 감염 가능성 ↓

메디톡스가 지난 10일 ‘코어톡스’의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치료’ 적응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코어톡스’는 이번 적응증 획득으로 론칭 1년만에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치료 등 총 2개의 적응증을 확보, 미용 및 치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뇌졸중 환자 3명중 1명 꼴로 흔하게 나타나는 ‘뇌졸중 후 근육 경직’은 뇌의 중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하며, 심할 경우 환자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경학적, 기능적 회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직된 상지근육 부위에 ‘코어톡스’를 투



메디톡스 코어톡스

여하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3년간 최대 6회까지 요양급여도 인정받을 수 있다.

‘코어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중 효능에 관여하지 않는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하여 내성 위험성을 낮춘 차세대 보툴리눔 독소 제제다. 특히 세계 최초로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보툴리눔 배양 배지의 동물 성분을 완전 배제하고, 완제품에 사람혈청알부민(HSA)을 안정화제로 사용하지 않아 혈액유래 병원

균과 전염성 미생물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용 시장에 비해 고용량 시술이 요구되는 치료 시장 특성 상 내성 위험성을 낮춘 ‘코어톡스’는 가장 적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국내 보툴리눔 독소 업체 중 최다 치료 적응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추가 적응증을 확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치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특별성 과민성 방광(임상3상), 양성교근비대증(임상3상), 발한억제(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임상3상), 만성편두통(임상2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양성교근비대증(사각턱)과 발한억제 관련 적응증은 올 상반기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희귀병환자 위해 10년째 ‘저단백밥’ 생산

CJ제일제당 재능기부형 햅반 제품



CJ제일제당이 단 200여 명의 희귀질환자를 위한 이른바 ‘재능기부형’ 제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내놓은 ‘햅반 저단백밥’은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12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햅반 저단백밥은 단백질 함유량을 일반 햅반의 10% 수준으로 낮춘 식품이다. 페닐케톤뇨증(이하 PKU) 등 선천성 대사질환을 앓는 이들을 위해, CJ제일제당이 2009년 내놓은 재능기부형 제품이다.

PKU는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페닐알라닌’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는 선천성 희귀 질환이다.

CJ제일제당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의 건의로 2009년 3월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총 8억 원 투자와 7개월 간의 연구 끝에 독자적 기술과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그 해 10월 말 햅반 저단백밥을 내놓는 데 성공했다. 그 후로 10년간 생산된 햅반 저단

백밥은 약 150만 개에 달한다. 환우 200명 식탁에 햅반 저단백밥이 하루 두 끼 이상 꾸준히 오른 셈이다.

햅반 저단백밥은 일반 햅반과 비교해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배 이상 걸린다. 쌀 도정 후 단백질 분해에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등 추가로 특수 공정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200여 명을 위한 제품이라 이윤만을 생각한다면 판매할 수 없지만, ‘즉석밥 최고 기술을 가진 CJ제일제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확고한 기업 철학이 꾸준한 생산의 원동력이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민지 기자 kmj@

케이캡정, 헬리코박터 제균 적응증 추가 승인

CJ헬스케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4개 적응증 확보... 치료 영역 넓혀
약효지속력 우수... 야간 위산분비 ↓



씨제이헬스케어 케이캡정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이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치료에도 쓰일 수 있게 됐다.

한국콜마 관계사인 씨제이헬스케어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P-CAB 계열 신약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의 적응증을 추가로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적응증은 ‘소화성 궤양 및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이다.

케이캡정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치료에 이어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요법까지 4개의 적응증을 확보하며 소화기계 질환에서의 치료 영역을 더욱 넓혔다. 특히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만성 위

축성 위염 환자의 제균 치료 적응증을 획득한 제품은 케이캡정이 최초다.

케이캡정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새로운 계열인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 계열의 대한민국 30호 신약으로, 지난 2019년 3월 출시됐다. 기존 치료제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 식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우수한 약효 지속력으로 야간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점 등이 특징이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은 위장점막에 주로 감염되어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산양, 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캡정의 이번 허가내용에는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치료 시 케이캡정 50밀리그램과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1그램, 클라리트로마이신 500밀리그램을 1일 2회, 7일간 복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케이캡정은 앞서 허가 받은 위궤양의 치료에 이어 이 달 9일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병용요법에도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급여 확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유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요법 등 케이캡정의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 임상 연구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올해도 내추럴... ‘베어스킨 메이크업’ 인기

여러겹 레이어링보다 얇게 밀착

‘내추럴 트렌드’가 올해도 유행이다. 2020 S/S 시즌을 맞이해 뷰티업계에서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를 연출하는 베이스메이크업이 주목받으며 민낯 같은 피부인 ‘베어스킨(Bare Skin)’을 연출하는 ‘베어스킨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베어스킨 메이크업의 기초는 원래 피부 톤과 어우러지면서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피부 표현이 핵심이다. 여러 겹의 베이스 제품을 레이어링하기보다는 피부에 얇게 밀착되는 하나의 파운데이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 결점 커버는 물론 피부에 얇게 밀착되면서도 촉촉함을 모두 겸비한 제품

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파운데이션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바닐라코는 진짜 내 피부보다 얇고 고급스럽게 표현되는 커버, 지속, 밀착의 정수 ‘커버리셔스 파워 핏 파운데이션’을 선보이고 있다.

‘커버리셔스 파워 핏 파운데이션’은 강력한 파워로 곰개 갈아낸 미세 커버리셔스 입자가 얇고 촘촘하게 밀착되는 베이스 제품이다.

에스브이는 전문 아티스트에게 정교한 테일러링을 받은 듯 매끈하고 촉촉한 메이크업을 연출해주는 피팅 파운데이션 ‘프로 테일러링 파운데이션 비글로우 SPF25 PA++’를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헤라’가 얇고 투명한 윤기로 24시간 변함없이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최근 새롭게 출시해 선보이고 있다. /조효정 기자

국민음료 ‘비타500’, 펭수와 만났다

광동제약 ‘비타500 데일리 스틱’



광동제약 비타500 펭수

광동제약이 분말 스틱 타입의 ‘비타500 데일리 스틱’을 출시하며 비타500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비타500 데일리 스틱은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를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항산화작용과 체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준다. 분말 스틱 타입으로 간편한 섭취와 휴대성을 더했다.

최근에는 광동제약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고 SNS 슈퍼스타 펭수 모델 선정 소식을 알려 많은 팬들

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비타500 펭수 에디션이 빨리 출시되길 기대한다는 응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세경 기자

AHC

아·태 뷰티시장 ‘순항’

화장품 브랜드 AHC가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잇따라 진출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뷰티 시장에서 순항을 이어나가고 있다.

AHC는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 2월에는 일본에서 공식 런칭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러시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뷰티 업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런칭 행사를 가지고, 최대 뷰티 온라인 쇼핑몰인 ‘소시올라’ 단독 런칭을 시작으로 현재는 왓슨스를 비롯해 총 65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 중이다. /조효정 기자

피부 고민 끝!... ‘빌리프 아쿠아밤 앰플 세럼’

LG생건, 피부 톤·결 케어 2종



LG생활건강이 고농축 허브 성분을 담아 수분 공급은 물론 각 피부 톤과 피부 결을 집중 케어하는 ‘빌리프 아쿠아 밤 앰플 브라이트닝 세럼’, ‘빌리프 아쿠아 밤 리파이닝 앰플 세럼’ 2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트루 허브 브랜드 빌리프에서 선보인 이번 앰플 세럼은 브랜드 대표 제품이자 일명 ‘수분 폭탄 크림’으로도 불리는 ‘더 트루크림-아쿠아 밤’의 핵심 포몰러를 베이스로, 투명한 피부 톤을 위한 ‘아쿠아 밤 브라이트닝 앰플 세럼’과 피부 결 케어를 위한 ‘아쿠아 밤 리파이닝 앰플 세럼’ 총 2종으로 구성됐다.

‘아쿠아 밤 브라이트닝 앰플 세럼’은 8가지 허브 추출물로 이루어진 허브-토코 포몰러와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된 버블 오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투명한 피부 톤으로 건강하게 가꿔준다. 촉촉한 워터젤 제형에 옐로우 버블 오일이 함유되어 피부에 빠르게 스며드는 것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